



04
POWER INTERVIEW

변호사의 손길로 업무 결과에
법적 신뢰와 공익 기여가 담보된다는
확신이 자리잡으면 좋겠다

조중호 변호사

32
SPECIAL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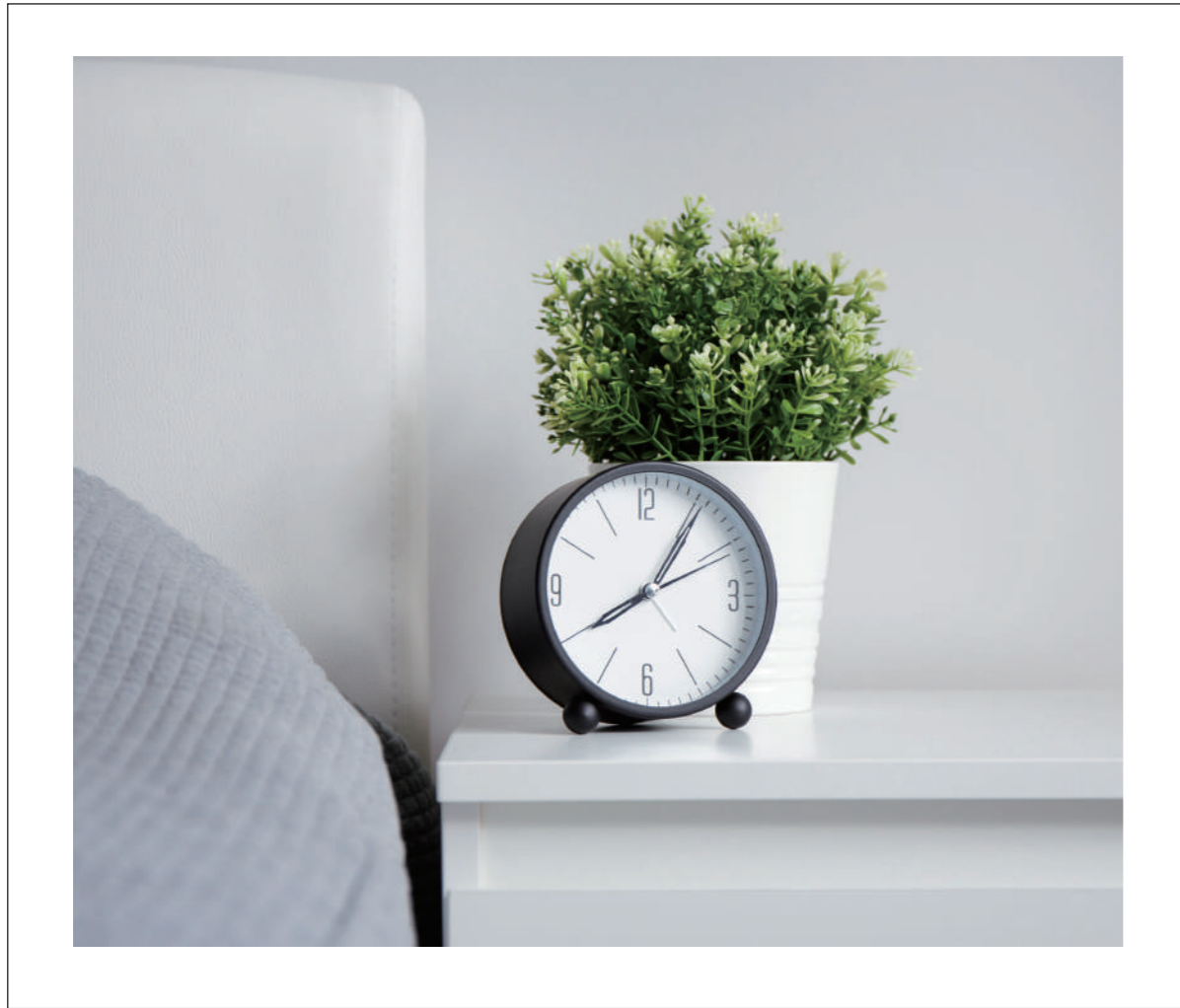
응시시간·응시횟수 제한하는
불합리한 시험,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이 유일해

김형래 변호사

36
LAW FIRM TOUR

튼튼한 법적 기본기 갖추고,
전문가·동료로서
믿을 수 있는 인재 찾아

법무법인 [유] 지평



성실함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것들도 이루게 한다.
자기 자신을 이루는 것은 어썩이요,
자기 이외의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은 지혜로움이다.

- 증용 -

POWER INTERVIEW	04
조중호 변호사	
HOT ISSUE	08
HAPPY LAWSCHOOL	10
김경연 학생	
BOOK	13
REAL STORY	14
선종원 변호사 / 신호인 변호사	
CONTEST	20
제1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HOT SPOT	24
로스쿨생이 사랑한 카페.ZIP	
EVENT	27
표지사진 공모	
SPECIAL INTERVIEW ①	28
박동진 원장	
SPECIAL INTERVIEW ②	32
김형래 변호사	
EVENT	35
2023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LAW FIRM TOUR	36
법무법인[유] 지평	
LETTER FROM	40
황재훈 변호사	
SPECIAL REPORT	42
로스쿨 입학 방법 총정리	
HEALTH MENTORING	46
박상윤 변호사	
LAW TOON	48
법대가리	
BOOK	50
송현량 주무관	
EVENT	53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MOVIE TALK	54
고봉주 변호사	
AKLS NEWS	56
OUT CAMPUS	57
QUIZ	58



표지 이미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공모한
<로스쿨창 표지 공모전> 수상작

<디케의 뒷모습>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뒤를 이어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서희(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한기정
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운철
위원 김명기, 김별다비, 송민경
편집 박소희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 (02-2268-2592)
인쇄 삼화인쇄(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떠한 실패도 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실패라고 불리는 것들은 때론 삶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또래들보다 늦었던 대학 생활과 사법시험에서의 고배는 그래서 조중호 변호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조중호 변호사의 실패를 실패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다.

변호사의 손길로 업무 결과에 법적 신뢰와 공익 기여가 담보된다는 확신이 자리잡으면 좋겠다

조중호 변호사

KBS 자산운용부 팀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KBS 한국방송공사 자산운용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조중호라고 한다. 2008년 1월 1일에 KBS에 입사했고, 지난 2019년 자비연수 휴직제도의 기회를 통해 건국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여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Q. 법학을 전공한 건가?

A. 처음부터 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다. 공대를 가고 싶었지만 5번의 입시 끝에 문과로 전향하여 ‘독어독문학과’에 진학하였다.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생활과 법률’이라는 교양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법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평생 안 해본 연습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고(웃음), 전공을 바꿔서 법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시 부랴부랴 수능을 준비해서 연세대학교 법학과 1학년으로 입학했다.

Q. 첫 번째 대학에서보다 더 어린 동기들과 수업을 들었겠다(웃음).

A. 27살에 1학년으로 다시 시작하였으니 동기들보다 7살 많았다(웃음). 다행히 법학과 200여 명의 정원 중에 나와 비슷한 연배의 동기들도 있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Q. 사법시험에도 도전했었나?

A. 아무래도 또래보다 대학 생활을 늦게 시작한 만큼, 사법시험은 학교에 다니면서 합격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과외교습을 통해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에 한계를 느꼈다. 고심 끝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Q. 취업에 도전하기 시작한 때가 만으로 37세였다. 취업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A. 취업을 준비할 당시 한 후배가 “형님은 다른 사람들이 퇴사를 준비할 때 입사를 꿈꾸시네요.”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던 게 기억난다(웃음). 신입으로 취업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였고, 당시에 많은 공기업들이 지원자의 연령 제한을 없앴다고 공고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감사하게도 한국전력공사와 KBS는 약속을 지켰고 최종적으로 KBS에 입사했다.

Q.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 로스쿨에 진학하여 다시 법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A. KBS에 입사하여 보도본부, KBS 교향악단 법인설립 추진단, 지식재산권부에서 근무했다. 법정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업무들

이 많이 주어졌는데,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법 지식은 계속 휘발되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업무에 적용하기 바빴다. 그때마다 ‘내가 이 업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도 객관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내실 있는 학습의 기회가 다시 필요하고 변호사 자격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스쿨에 도전하게 됐다.

Q. 직장생활을 하면서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한 건가.

A.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의 경우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한다고 해서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고 느꼈다.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리트의 특성은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로스쿨 입시에 도전해 볼 용기를 주었다. 반면 전적으로 로스쿨 입시만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Q. 건국대 로스쿨에서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만학도로 로스쿨에 입학해보니 동기 중에 고등학교 23년 후배도 있었고, 학부

후배인 교수님도 계셨다(웃음). 3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입사 절차를 위해 줄을 서는 자리에서 업무를 돕던 학생이 나를 뵈고 보더니, “아버님~ 주차권 받으시려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라(웃음). 이와 유사한 일이 종종 있었다.

Q. 가장으로서 로스쿨 진학과 기숙사 생활을 선택할 때 고민이 많았겠다.

A. 집이 수원이라서 2학년 때까지는 통학을 했다. 3학년이 되니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도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그때 아내가 마지막 1년은 기숙사에 들어가서 집중하라고 권유했다.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가 된 것은 아내의 배려와 딸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웃음).

Q. 휴직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한 번에 붙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것 같다. 멘탈 관리 어떻게 했다?

A.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대학입시나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실패자의 낙인을 짊어지고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어떤 것도 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도 수용하리라 다짐했다. 다만,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Q. 만 49세의 나이로 로스쿨에 입학한 거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체력이 달라지는 않았나?

A. 20대 초반 무렵 체중감량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로스쿨에서도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헬스, 달리기 등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까지도 체력 때문에 힘이 들지는 않았다(웃음).

Q. KBS에 복직한 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A. 자산운용부 팀장을 맡게 되었다. KBS는 방송 업무를 하기 위한 자산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송국 업무용 건물, 부지 등의 부동산과 직접적인 방송장비는 물론, 헬리콥터를 비롯한 방송제작을 위한 다양한 물적자산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매각하는 일을 한다. 또, 자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Q. 로스쿨에서의 학업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물론이다. 로스쿨에서 학습한 판례나



법률의 해석이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라는 자격을 바탕으로 업무상 판단을 내릴 때, 접근 기법과 판단에 이르는 사고 과정이 훈련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곤 하는데, 3년간 애쓴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웃음).

Q. 송무 영역에서 업무를 해보고 싶지는 않은지?

A. 나의 경우엔 로스쿨에 입학할 때부터 다시 복직을 할 생각이었다. 직장 경험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이 송무 영역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 송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의 경우 다양한 꿈을 꾸고 입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구체화하기에는 로스쿨에서의 수험생활이 너무 벅차다는 거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탐구할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다.

Q. 기업·공공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 우리가 이미 알고 익숙해져 있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스스로 고정관념 속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전통적인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손길이 닿으면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공익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라고 믿는다.

Q. 마지막으로 변호사 조중호와 인간 조중호의 꿈은 무엇인가?

A.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아내가 내게 “누군가 당신에게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지 물어본다면,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답을 변호사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주문하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었고(웃음), 3년 내내 답이 찾아지지 않았다.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에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감춰둔 이유라는 스스로의 위선을 발견하곤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기도도 그 답을 간절히 구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변호사의 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었고, 꿈을 주신 데에는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기에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 결단이, 인간 조중호 그리고 변호사 조중호의 꿈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웃음).

issue 01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 기록 평가, 검사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은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issue 04

**경희대·동아대 로스쿨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부 최우수상' 수상**

5월 9일(월)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총 573명의 대학·대학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희대·동아대 연합팀은 과태료 재판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을 제안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수상작은 향후 법무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issue 02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어울림 세미나실 완공식 개최

인하대학교 로스쿨은 지난 5월 30일(월) 재학생들의 쾌적한 자습 및 스터디 공간 확보와 소형 강의에 적합한 강의실을 개선하는 'ILS 어울림 세미나실' 완공식을 개최하였다. 해당 공간은 2009년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컴퓨터실로 활용되다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전용세미나실(소형 강의실 4개, 스튜디오 1개)로 개조되었다. 어울림 세미나실은 인하대 로스쿨 출신 '법무법인 창과방패', '법무법인 정술' 소속 변호사들의 후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완공식에는 이경주 원장, 조명우 총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하였다.



issue 05

대법원, 로스쿨 출신 신입 재판연구원 99명 임용

대법원이 5월 1일(일)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입 재판연구원 98명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정원을 고려해 총 99명(로스쿨 출신)을 선발했다. 98명은 5월 1일에 임명되고, 나머지 1명은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울고법 53명, 대전고법 9명, 대구고법 8명, 부산고법 12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0명을 각각 선발하였는데, 이 중 남성은 33명(33.3%), 여성은 66명으로 66.7%를 차지했다. 최연소 재판연구원은 25세, 최연장자는 36세이다.

issue 03

서울대 로스쿨 축제 '설로 봄' 열려

5월 3일(화) 서울대 로스쿨 봄축제 '설로 봄'이 열렸다. 호그와트 기숙사를 모티브로 미니게임과 단체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진행된 '로즈카반의 죄수 with 해리포터', 이동진·이봉의·이재민·이정수·전중익 교수가 연사로 참여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삶과 법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이야기한 '토크 콘서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원우들과 찍은 사진을 전시한 '사진전', 2인1팀 복식 종목으로 진행된 '탁구 토너먼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모처럼 열린 대면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마무리되었다.



issue 06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4,620명 접수**

7월 24일(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최종 응시원서 접수인원은 전년(13,955명)보다 655명(4.77%) 증가한 14,62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하는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인원은 595명이다. 성비로는 남성이 7,240명(49.52%), 여성이 7,380명(50.48%)이 접수하여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접수자 중 10,341명(70.71%)이 서울을 시험지구로 선택하였다. 접수자의 전공은 사회계열이 22.30%, 상경계열이 20.49%, 인문계열이 18.84%, 법학계열이 17.43%였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7,108명(48.62%)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미만이 3,057명(20.9%),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603명(17.80%) 순으로 나타났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믿음으로

김경언 학생은 특수외국어로 불리는 페르시아어(이란어)를 비롯하여, 행정학, 중국어 등 여러 학문을 전방위적으로 공부했다. 다양한 학문으로 사고를 확장해놓은 덕분에 김경언 학생은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도 묵묵히 법학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Q. 학부에서 전공한 ‘페르시아어·이란학’은 어떤 학문인가?

A. 이란의 역사가 페르시아어에서부터 이어져 왔듯이 학부에서 전공한 ‘페르시아어(이란어)’는 고대 페르시아어에서부터 발전되어 왔다. 참고로 이란의 공용어는 흔히 이란어로 불리지만, 정식명칭은 페르시아어다. 페르시아어는 이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사용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공용어 중 하나인 다리어는 페르시아어(이란어)와의 차이가 방언 정도에 불과하여 다리어 또한 페르시아어와 함께 전공 수업을 통해 익힐 수 있었다.

Q. 전공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이 눈에 띈다.

A. ‘페르시아어·이란학’을 전공하면서 국제정세와 이란의 헌법, 국제법, 이란 및 중

동 지역학까지도 공부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전공 외에도 행정학을 부전공하고 중국어 자격증(HSK)을 취득하였고, 2학년 때부터는 대학 내 고시반에서 국제법, 헌법, 국제정치를 공부하며 공익 실현을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꿈을 키웠다.

이러한 탐구의 확장은 특수외국어 진흥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주한이란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영어, 페르시아어, 한국어를 사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어 동시(童詩)를 이란어로 번역해서 책의 저자로 이름이 실려 이란 현지에 출판되었을 때는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나의 지식이 공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배우고자 하였고, 단과대학 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김경언
학생

석(총장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Q.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A.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활동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고시반에서 처음 국제법과 헌법을 접했을 때, 법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막연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다문화가정 아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법이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근간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후 헌법재판소 대학생 교육을 수강하면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법조인이 되어 공익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여 민법, 형

법, 헌법, 행정법 등 법 과목을 수강하였고 법학 지식의 기반을 쌓았다.

Q. 로스쿨에서의 첫 번째 학기는 어떻게 보냈나?

A. 처음엔 페르시아어(이란어)와 여러 학문을 공부한 시간에 비해 법학을 공부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판례마다 개개인의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 층위를 연구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법학을 공부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웃음). 두꺼운 법서들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교수님들께서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부담감이 훨씬 덜했다.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선배님들, 동기들의 모습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되었다.

Q. 법학과 친해지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있다면?

A.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과 복습을 꾸준히 했다. 처음에는 무작정 교과서로 전 범위를 여러 번 회독하려 했으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그 주차에 배운 내용만이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려고 노력했다.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문제에 대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연습을 통해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새로운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며 문제의 쟁점을 도출해보려고 했다.

Q. 사례형 답안도 처음 작성해봤을 텐데, 어렵지는 않았나?

A. 로스쿨 진학 전 운이 좋게도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쟁점을 도출하고 사례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기회가 있었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해서 사례형 답안을 처음 작성했을 때는 쟁점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급한 마음에 시중에 있는 사례집을 모두 구매하여 해설을 외우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머리에 쥐가 났다(웃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법서, 교수님 강의안, 판례 및 조문을 반복해서 익혔다. 사례 답안지 작성을 해보니 공부도 흥미로워졌고, 중간고사 때 민법 과목에서 만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기본 법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앞으로 더 잘 해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Q. 입학 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나의 공부 방법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무작정 공부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는데 동생이 집에 두고 왔던 법서를 가져다주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왔다. 그날 동생과 산책을 하며 학교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다가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별들이 유난히 더 반짝였다. 동생과 교정을 걸으며 느꼈던 밤공기와 반짝이는 별들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이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Q. 공부가 잘 되는 나만의 장소가 있다면?

A. 솔직히 공부가 잘될 때는 어디에 있던 잘 되고, 안 될 때는 아무리 쾌적한 곳이라도 잘 안 되는 것 같다(웃음). 그래도 장소를 바꾸면 분위기 전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져서, 공부가 안될 때는 학교 내 테라스를 이용한다.

Q. 공부 이외에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A. 부족한 운동 시간도 채우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교정을 한 바퀴씩 돌곤 한다. 로스쿨이 정문에 위치하고 있어 후문까지 한 바퀴를 돌고 오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운동도 된다. 아무래도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필라테스와 헬스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 중이다.

Q. 향후 계획은.

A. 특수외국어를 전공하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법조인이 되어서도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 법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된다면 법률 봉사활동 및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김경언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LEET,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수월하다!

모든 공부는 흥미를 느끼야 수월해진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논리학을 수강하며 문제를 위한 논리학이 아닌 학문 자체를 공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LEET 문제 풀이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국제정치, 국제법, 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것도 지문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의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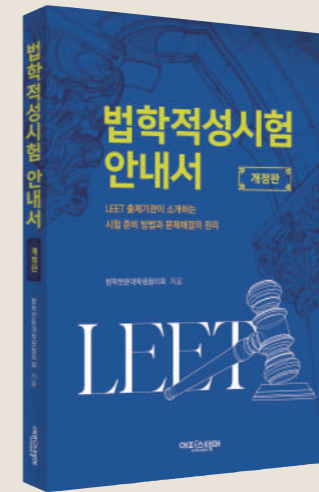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면접 준비기간과 마지막 학기 시험기간이 겹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를 대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에 들어오기 전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에 대하여

누구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부담감을 느끼겠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좋겠다. 자신을 믿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로스쿨 진학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진학 후에도 더욱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적성시험 안내서」 개정판

출제기관이 직접 밝히는 법학적성시험의 모든 것
최신 경향 해설, 엄선된 예제 수록!



「법학적성시험 안내서」는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자 집필한 공식 안내서이다. 개정판에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예제 문항도 최신의 것으로 교체되어 있다. 시험의 의미 및 시험 준비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새롭게 수록하여, 수험생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가 격	18,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2022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은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연구사업단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제12판은 LEET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역별 최신 5회분(2022~2018학년도)과 과거 6회분(2017~2012학년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발 행 일	2021년 11월 30일
판 매 가 격	18,000원~22,000원



효율적인 수험 전략으로 1년을 보내는 방법



선종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1. 들어가는 말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은 먼저 같은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남긴 기록들과 저의 솔한 궁금증을 해소해준 선배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자칫 개인적인 의견을 장황하게 남김으로써 후배 수험생 분들에게 그릇된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수험생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입장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취사선택 하시리라 믿고 저의 생각을 담아볼까 합니다. 제가 수험생활 동안 지키고자 했었던 나름의 결심은 수험생활에 따라오는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수험생활 시작부터 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간까지 겪는 불행의 크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식 고득점, 각 과목별 사례형, 기록형에서 고른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아래 합격 수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부의 순서

변호사시험은 사례 및 기록형은 원점수가 표준점으로 변환되어 합산되는 반면 객관식은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례 및 기록형에서 고득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격에 있어 객관식 영역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수험계의 정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해 동의하고, 실제 수험생활에 있어서도 객관식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편입니다. 그러나 수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까지 객관식 대비가 사례 및 기록형 대비에 우선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례 및 기록형 대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일정 궤도에 이르고 난 뒤에 객관식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객관식 대비의 상당 부분이 사례 및 기록형 준비를 통해 완성될 수 있고, 서술해야 할 문구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 사례 및 기록형 쟁점들은 장기기억화 되기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서 및 수험강의에서는 판례 등 법리의 중요도를 분류할 때, 사례 및

기록형 출제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는 'A급 판례'라는 명칭을, 쟁점에는 '객관식용 판례' 등의 명칭을 붙이곤 합니다. 이러한 중요도는 객관식 출제 빈도와도 일치하는데, 객관식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례 및 기록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리와 최신 판례들이 다수 출제되고 그 외의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에 임함에 있어서 중요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을 우선시하여 중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사례 및 기록형에서 답안으로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를 높이고, 이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객관식 대비를 위해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 순서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8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사례형 및 기록형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하고, 8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객관식 문제풀이를 본격화한 뒤 11월, 12월 두 달간은 객관식 공부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객관식 점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수험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과목별 공부 비중

모든 수험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제 주변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민사법 3문이나 선택법에 시간과 노력을 덜 투자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수 배점을 살펴보면 오히려 민사법 3문과 선택법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학습량에 있어서 속칭 '주요 과목'들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형공 사례 및 기록형에서 표준점수 10점을 더 획득하는 것과 선택법 사례형에서 표준점수 10점을 획득하는 것은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점수 획득의 관점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과목이 실무상, 또 학문적으로 중요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순전히 경쟁하는 수험생들이 투입하는 노력과의 상대적 비교 및 해당 과목에서 높은 실력을 갖는 데 필요한 공부량의 절대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필요한 공부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서 비교할 수는 없을 테니 다분히 저의 주관적 감에 의존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가령 형사법 사례형 1문에서 표준점수 50점을 획득하던 수험생이 60점을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보다 선택법 사례형 1문에서 표준점수 40점을 획득하던 수험생이 50점을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더 적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6, 8, 10모 등을 거치면서 본인의 사례 및 기록형 점수가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선택법 등 자신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투자해온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을 높여 전략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총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4.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계획 수립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 또는 막연한 비관주의에 빠져 공부를 중도 포기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각 과목에 대한 자신의 학업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실전과 같이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채점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전국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각 과목 및 영역별로 냉정히 들여다보고 이를 향후 공부계획을 수립 및 수정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시간과 체력 소모, 그리고 아직 각 과목의 시험을 치를 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를 자신이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은 어쩌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그 날까지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기회를 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략적 이점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하는 공부의 집중력과 효율이 평상시 공부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모의고사에 전력으로 응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학부생활 및 로스쿨 생활을 통해서 평상시 공부보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몰입해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는 것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실전과 같이 생각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응시한다면 그 응시를 위해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높은 집중력이 발휘될 것이고 이로 인해 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의고사에 반드시 응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5. 공부해야 할 양의 최소화

6월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느낀 첫 감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는 달리 시험을 앞두고 시험 범위를 일회독 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존에도 무거운 기본서보다 가벼운 핸드북 위주로 공부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양을 줄이고 그 줄여든 양을 정확하고 깊게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같은 날 보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과목에서 공부해야 할 양을 늘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해야만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점수 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므로 풍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다른 수험생들이 작성하는 답안보다 아주 조금 나은 답안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 쟁점 위주로, 최소한의 키워드만을 정리해두고 이를 정확히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문제는 시험 시간에 비해 배점이 매우 크고 쟁점을 다수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쟁점별로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고 소위 ‘통백’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개의 쟁점 중 9개의 쟁점을 아무리 정성을 들여 풍부하게 서술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쟁점을 건드리지도 못하였다면, 이는 10개의 쟁점을 최소한 건드리기라도 한 답안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 쟁점에 대하여 실전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수준의 양만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의고사를 치르거나 답안 작성 연습을 할 때에도 정확히 배점당 요구되는 답안 분량(10점당 13줄 분량이 통설입니다.)만을 작성하고 더 아는 것이 있더라도 과감히 작성을 멈추고 다음 쟁점 및 문항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6. 마치면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세상에는 올바른 수험생활에 대한 수많은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수험전략에 있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소위 수험가의 통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택하였다고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분들이 여러 수기와 선배들의 조언을 잘 취사선택하셔서 적어도 수험생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신호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1. 들어가는 말

저는 학부 과정에서 공학을 전공하여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는 법학을 제대로 공부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로스쿨 생활의 시작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두려움’은 목표를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긴 수험생활에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기가 현재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원우님들께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경험을 드립니다.

2. 시험은 소중한 기회

로펌 인턴을 준비하면서 1학년 때 회사법을 독학하였고 회사법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회사법 수업을 별도로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변호사시험 직전에 수험적으로 가장 정리하기 힘든 과목이 회사법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수강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외워놓았던 경험이 있어야 변호사시험을 볼 때 한결 수월해집니다. 수업이 본인에게 맞지 않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인터넷강의로 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보다는 수업을 통해 소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논문을 쓰거나 다양한 학회 활동에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시험 과목에 맞추어 학교 수업 커리큘럼을 짜고 남은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타 학술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경험상 수업을 통해 시험 기회를 얻지 못한 과목은 변호사시험 직전에 학습 부담이 10배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조문에서 출발하기

저는 기본 개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해당 단원에 있는 법 조항들을 천천히 정독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쟁점에 대한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시험장에서 유일하게 주어지는 참고자료인 법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 공부하실 때 출력된 법전을 반드시 옆에 펼쳐놓으시고 자주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결국 법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법학도로서 법률에 대한 해석론을 다양하게 공부하지만, 해석론 공부에만 치중되면 판례나 학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떤 조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방향을 못 잡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례형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 추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 목차구성 능력

사례형 시험의 경우 Case를 읽고 짧은 시간 내에 목차를 구성하여야 채점기준표에 가까운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차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Case들을 직접 보면서 답안지에 써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례형 답안을 전부 작성하려고 하면 체력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를 읽고 목차만 잡은 다음에 해당 목차에 들어갈 키워드만 몇 개 정도 적어놓는 방식으로 사례형 풀이를 연습해 나갔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면 짧은 공부 시간에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암기 그리고 또 암기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반복하여 읽다 보면 그 깊은 뜻이 이해되고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궁금증 해소는 해당 과목 시험 한 달 전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의 암기장을 만들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외워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학 시험은 치열한 암기 싸움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 이해하고 내용을 숙지하였다 하더라도 1시간조차 채 안 되는 답안작성 시간에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 있지 않다면 절대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3학년의 경우 특히 10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새로운 쟁점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내용들을 우선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불안할 때

긴 수험기간에 외롭고 힘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감이 자신을 휩싸게 되고 더 이상 펜이 손에 잡히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하면 밖에 나가 산책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찬찬히 떠올려 본다거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법학 내용에 관한 목차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 나가면서 내용을 상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민법을 제1조부터 아는 데까지 상기해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백지식 공부 방법이 저에게 복습 효과를 줌과 동시에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7. 마치며

변호사시험은 매년 약 1,700명의 합격자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1,700가지 이상의 합격 공부 방법이 존재합니다. 특정 공부 방법이 절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 공부 방법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빠르게 찾아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합격 수기도 절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원우님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참고용으로 활용되어 힘든 로스쿨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때까지 항상 목표를 성취해오며 이 자리에 까지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아직 1:2 학년 과정에 계신 분들께서도 남은 로스쿨 생활 열심히 준비하셔서 처음 입학할 때 목표했던 그것들을 꼭 쟁취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제1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연세대 로스쿨팀, 3관왕 차지

매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는 1994년 비엔나에서 처음 시작된 국제 모의상사 중재대회(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와 궤를 같이 하는 모의재판 대회이다. 제1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연세대 팀 윤혜원 팀장에게 대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좌측 상단부터) 데이비드 맥아더 변호사, 강환 학생(연세대), 사무국, 윤혜원 학생(연세대), 존 리 대표변호사, 최시원 학생(한동대), 정경화 변호사, 진명진 학생(한동대)

Q. 이번 대회에서 연세대 팀은 최종 우승과 우수서면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 최우수변론상까지 수상했는데 소감은?

A. 팀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학업과 실무수습 등 다들 바쁜 스케줄 중에도 치열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시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뻛습니다. 또 귀한 시간을 내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요.

개인상은 팀원 중 누가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결선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대회가 끝난 다음, 까다로운 질문으로 계속 몰아붙였는데도 단단하게 입장을 견지하며 변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걸 미리 팀 내에서 끝장토론을 여러 번 해 보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중재라는 매력적인 분야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맞본 것 같아 기쁩니다. 실제 사건은 무트와 비교되기도 못할 만큼 변수가 많고 복잡할 테니,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Q. 팀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A. 연세대 법전원에는 국제중재와 국제법무에 관심 있는 원우들이 모인 IAA(Yonsei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 국제중재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환, 김세엽, 신지한, 장석우, 정유현, 신지한, 최민영, 최지인 학생이 자원해 팀을 꾸리게 됐으며, 연세대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김서연, 김현민, 곽민주, 박진하, 이세연 학생도 합류해 리서치를 도와주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Q.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모의재판 대회인 ‘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의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는데, 이번 대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A. 올해 주제는 CIF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J 기업은 환경 이슈에 민감하고 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J 기업에 RSPO 인증을 받은 팜유를 E 기업이 몇 년에 걸쳐 다량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E 기업 팜유의 RSPO 인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터지자 J 기업이 황급히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결정을 번복해, E 기업이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차적 차원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중재를 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중재지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실체적 부분, 즉 본안에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재신청인이 통상 계약에 사용해 왔던 약관이 이 계약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다루기 위해 모회사의 관행이 자회사의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CISG 하에서 계약은 어떤 단계를 거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약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쪽은 약관을 적용받는 측인지, 적용하려는 측인지를 논쟁해야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특이하게 절차적 파트와 실체적 파트의 쟁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자칫 순환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역할을 확실히 분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서면 작성 시에 사용한 전략은?

A.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사안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디테일한 사실관계 하나가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파훼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분량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 회의에서 목차를 짜고 용어를 통일한 뒤 분량을 나누었습니다. 리서처가 특정 쟁점을 맡아 각종 자료를 탐독하며 목차에 살을 붙이면 그 부분에 대해 스피커가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 작업을 여러 번 거친 후, 최종 제출 전에 리서치장과 스피커들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며 흐름에 맞게 문장과 형식을 다듬고 제출했습니다.

Q. 구두 변론에서의 전략을 소개해달라.

A. 첫 번째로, 머릿속에 있는 걸 모두 전달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달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지만 어떤 복잡한 질문이 나와도 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는 가능한 한 풍부하게. 대회가 진행될수록 심사위원들도 통상적으로 계속

나오는 기본적인 논박에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부분에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이 등장하든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여러가지 중 가장 적합한 근거를 활용해 변론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수입한 사건이라 여기고 이입했습니다. 결국 대회의 본질이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작업이니만큼, 우리 스스로가 의뢰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입장에 공감해야 보다 효과적인 논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두변론 연습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담당을 나누지 않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야 본인 주장에서 가장 약한 논리가 보이고, 그래야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서로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결국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Q. 연세대 팀은 누구에게 코칭을 받았으며, 어떤 도움이 되었나?

A. 우선 동아리를 지도해 주시는 김준기 교수님의 도움으로 기틀을 다졌습니다. 여러 로펌의 국제중재팀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께도 비대면으로 코칭을 받았는데, 대회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오시기 때문에 실무가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어떤 쟁점을 주목하실지 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시내 변호사님 외 법무법인(유) 올촌 국제중재팀의 여러 변호사님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의 박정우, 이정우, 조용호, 정진환 변호사님, 법무법인 화우 국제중재팀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흔쾌히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일전에 대회에 출전했던



학교 선배들과 이재혁 변호사님께도 도움을 요청했고, 친선교류를 통해 만난 학교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몇 달간 이어지는 와중에, 코칭 세션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팀의 현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 선배님들의 전문성은 그 자체로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차분하게 핵심을 찌르는 방식이나 패킷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짚어내는 예리함, 그럼에도 따뜻하게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는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대회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대회 경험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서면심사, 구두변론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어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A. 어차피 국제중재는 한국 내에서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변호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그 경쟁을 미리 겪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국내 로스쿨에서는 한국어로만 법을 다루는 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영어로 소화할 수 있는 범주를 넓히는 데 무트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재판정부를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부터 감을 못 잡았지만, 예전 대회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씩 익혔습니다. 나중에는 구두변론에서 쓰이는 정중한 표현으로 팀원들끼리 농담할 정도로 자연스럽게워지더라고요.

Q. 대회에 참가하여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인가?

A. 앞으로도 오래도록 현장에서 함께할, 같이 갈 동료들을 얻었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앞서 구두변론에서 욕심을 버리는 게 전략이라고 했지만,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코칭 세션도 회의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드라이브에 팀원들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력하는, 로스쿨에서는 아무래도 드물 수밖에 없는 경험도 두둑하게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제13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팁을 준다면?

A. 국내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대체로 더 차분하게 내용에 집중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몰아치는 느낌이 덜한 만큼, 논리를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변칙적인 질문이 등장할지 모르니 항상 남은 시간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트는 재학 중에 가장 실무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최전선에 계신 분들과 교류하며, 세계 각지의 전문가 / 예비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바쁨을 조금 즐길 수만 있다면, 타이틀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제 모의상사 중재대회(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국제 사법 분야에서 가장 수준 높은 모의재판 대회로 꼽히며 비엔나에서 열린다. 서면 작성과 구두 변론의 단계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문제로 제시된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읽고 분석하며, 관련 법률 문서를 찾아보고, 원고와 피고를 위한 서면의 초안 작성 및 구두변론을 하게 된다. 대회의 문제는 중재와 관련하여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협약과 기타 상법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홍콩 국제 모의상사 중재대회(The Vis East Moot, Hong Kong)

국제 모의상사 중재대회의 자매대회로 매년 홍콩에서 개최된다. 홍콩 대회는 기본적으로 비엔나에서 열리는 대회와 동일한 문제와 규칙으로 진행되지만, 참가자들은 비엔나와 아시아 대회를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회의 우승자도 각각 정해진다.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권 대회를 비엔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참가자들은 두 대회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주최 측은 비엔나 대회와 홍콩 대회에 모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서면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로스쿨생이 사랑한 카페.zip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로 채우는 로스쿨
학생들이 자주 가는
카페는 어디일까?
카공을 즐겨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혼자만
알고 싶은 카페를
추천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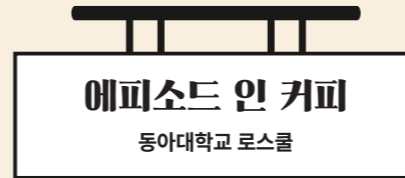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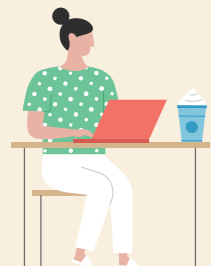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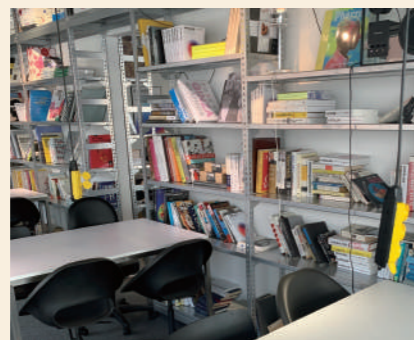
경북대 로스쿨 건물에서 단 3분컷 거리인 카페 포레스트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 북적대지 않고 한적해요. 로생의 영혼 음료인 아아랑 라떼 모두 투샷짜리라 혜자롭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잔에 2,500원이라 두 잔 마셔도 부담 없습니다. 대왕쿠키, 머핀, 휘낭시에, 스콘, 소세지빵, 파운드케이크 등 공부하다가 당 떨어질 때 집어먹기 좋은 디저트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화이트 톤이라 울적한 기분을 위로해 주고, 테이블도 널찍하고 의자도 편안합니다. 화장실도 완전 깔끔하고 좋은 향기가 나요. 오래 머물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주소: 대구 북구 경대로19길 7, 1F
인스타그램: @forest.bakerycafe



정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자리가 넓고 쾌적해서 주말 붐비는 시간대가 아닌 이상 적당히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과제나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으나 넓은 테이블에서는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가엔 2인 또는 4인석이 넉넉하게 있어서 혼공족이 많고요. 테이블도 넓고 트인 느낌이 들어서 카공하러 갈 생각하면 1순위로 찾게 되는 카페입니다. 콘센트도 많이 배치되어있고, 메뉴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인슈페너, 강추합니다!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47번길 13, 2F
인스타그램: @cafe.katalog



로스쿨생에게 최고의 카페인 충전소입니다. 동아대 로스쿨에서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고요. 테이크아웃 아아 가격이 단돈 1,500원에, 매일 할인 메뉴로 선정된 음료는 2,000원 저렴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쿠폰 도장 15개를 모으면 음료 2잔이 무료!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총 3개 층이 모두 카페인데, 자리가 매우 널널하여 혼공, 스터디 모두 가능합니다. 아, 로스쿨생은 '로스쿨생 전용 할인가(15% 할인)'로 마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조성된 작은 화단에는 카페 주인이 돌보는 길냥이들이 자주 등장하니 귀여움 주의! 마지막으 카페에서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기 때문에 커피 맛이 훌륭합니다.

주소: 부산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19



학교 정문에서 도보 15분 조금 안 걸리는, (나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카페입니다. 한성대입구역 바로 앞이라 근방에서 자취하는 성로생들이 가기 좋고요. 공간이 널찍하고 책상이 커서 공부하기 좋지만, 디저트 맛집이라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 평일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저트 종류가 정말 정말 많아서 당 충전하면서 공부하기엔 최고!

주소: 서울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24
인스타그램: @sweet__up

카페인모아

건국대학교 로스쿨



건국대학교 정문에서 2분, 기숙사와 법학관에서는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카페입니다. 아메리카노는 한잔에 3,500원! 저렴한 가격이지만 1인 테이블과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천장도 높고 조명이 밝은 편이라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단, 아이돌 노래가 자주 나와서 집중력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주소: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92 모아빌딩 1F



카페 시사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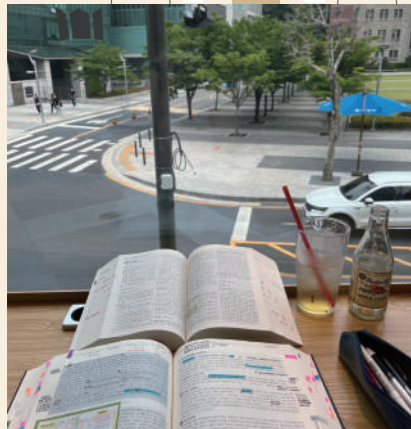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 시사는 시립대 정문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팔고 있어 배가 고픈 때는 빵을 먹으며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쿠아즈도 별미입니다. 안쪽 자리에는 법전을 갖고 공부하는 로스쿨생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17 (전농동) 2F

할리스 중앙대점

중앙대학교 로스쿨



로스쿨생이 만족할만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대 정문 바로 앞에 있어 법학관 기준 도보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카페로 충분치 않은 체력에도 방문 가능합니다. 2)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있는데, 2층부터 4층까지는 점주분의 경영철학 덕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별도 공부 공간이 있어서 집중하기 좋습니다. 3) 지하에는 스터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4) 공부하다가 열받으면 옥상 루프탑(5층)에 올라갈 수 있는데, 봄·가을 낮이나 여름밤에는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이라 방문하게 되었지만, 이용하다 보면 그 만족감에 이를 대체할만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들로 인해 대학생들과의 자리경쟁을 해야 하는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 동작구 흑석로 77

L A W SCHOOL **창**

포지 사진 공모



- **응모 자격:**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교직원(교수/직원)
- **공모 주제:** <로스쿨 창> 가을호(10월 발간) 표지
 - 로스쿨과 관련된 사람, 캠퍼스, 풍경, 건물, 이벤트 등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음.
 - 다양한 로스쿨 일상을 담은 캠퍼스 라이프 사진

• **마감 기한:** 2022. 9. 18.(일) 도착분까지 마감

- **제출 방법:** 이메일(showe@leet.or.kr)
 -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신청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제출 파일은 '제출자의 성명_작품명'으로 작성

- **출품 규격**
 - 파일 크기: 5MB(3200×2200픽셀) 이상
 - 파일확장자: jpg, jpeg, png, gif 형태의 디지털 사진

• **선정작 시상:** 30만 원(1작품)

• **문의처:** <로스쿨 창> 담당자(02-752-2037, showe@leet.or.kr)

• **결과 발표:** 10월 초순 개별 연락

• **유의 사항**

- 출품 사진은 응모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음.
- 선정작의 저작권 전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영구 귀속되며, 이후 필요에 따라 2차 저작물 작성 및 편집 저작물 제작 권리, 제3자 제공, 인터넷 서비스 등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짐.
- 세부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모든 제출 자료는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 예정임.



변호사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

최소 응시자 대비 80%이상 합격해야 정상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
동
진
원
장

“변시 합격자 줄면 로스쿨 더 황폐해 질 것” 우려
“시험과목 중심 수강, 필요한 과목도 폐강 속출”
“법조인 양성 ‘시험 아닌 교육’ 통해서 이뤄져야”
“야간 온라인 로스쿨도 합격률이 담보돼야 효과”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모두 3197명이었다. 이 가운데 합격자는 1712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53.55%다. 지난해 54.6%(1706명)보다 합격률은 줄고 합격자는 6명 늘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60%가 합격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스쿨 11기 석사 학위 취득자 중 72.39%가 합격했다. 전국 25개 대학로스쿨의 합격률도 초미 관심이 다. 서울대 로스쿨 82.2%, 고려대 로스쿨 76.9%, 연세대 70.9%, 성균관대 66.4%, 경희대 64.4%, 이화여대 63.4%, 한국외대 61.6%, 한양대 60.8% 등이 60%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지방대 가운데서는 영남대 로스쿨(61.70%), 아주대 로스쿨(59.78%)이 약진해 전체 10위권에 포함됐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은 “지난해 변시 합격자가 처음으로 줄었다. 이것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올해 합격률이 줄어 로스쿨은 더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7일 “변호사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은 반박 성명을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80% 이상 뽑을 것”을 주장했다. 매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의 ‘기 싸움’은 지난 10년간 계속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산정은 정부 인사(법무부, 법원, 교육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법조인 8인, 비법조인 7인)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 관련자 15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합격자 발표날 오후 2시에 모여 산정기준을 정한 뒤 오후 4시경 발표한다. 박 원장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Q. 로스쿨 출범 14년 차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가 있다면.

A. 합격률이 3%밖에 되지 않던 사법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신체·사회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권적 위치에 있었던 법조인이 시민을 돕는 전문가로 바뀌고 있다. 지자체 뿐 아니라 기업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다.

Q. 로스쿨이 변시합격 학원화되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가 뭔가요.

A.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한번의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 시스템(사법시험)’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매년 합격률이 감소하면서 로스쿨생 2명 중 1명 붙는 시험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이 제1의 목표가 되었고, 로스쿨은 변시합격의 학원처럼 전락했다.

Q.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로스쿨 교육 황폐화다. 학생들은 변호

사시험 과목만 수강한다. 특성화·선택과목은 폐강이 속출하고 있다. 수험법학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양한 전문성,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의 취지가 사라졌다. 기본과목 부담으로 학습 분량이 적은 선택과목 가령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 집중 현상이 늘고 있다.

박 원장(57)은 연세대 법대 83학번이다. 1987년 학부 졸업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후 박사과정 이수중 1992년 독일 뮌헨대로 유학을 떠났다. 거기서 5년간 수학하며 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모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박 원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전문 법률지식 습득만 하는 것을 안타깝게 봐 왔다. 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모두 예리한 감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 칼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상처는 매우 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정의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등을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법조인”이라고 덧붙였다.

Q. 취약계층의 합격률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A. ‘취약계층’의 합격률 하락 문제는 더 심각하다. 로스쿨은 현재 특별전형 입학자 7%, 지역인재전형 5~15% 선발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선 특별전형 합격률이 일반전형보다 더 낮다.(2019년 전체 합격률은 50.8%, 수도권 일반전형 합격률 61.2%였으나, 같은 해 특별전형 졸업생 합격률 33.6%, 지방 법원원 특별전형 합격률 18.8%, 지역인재전형 합격률은 35.9%였다.)

Q.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부

실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서 한해 졸업자가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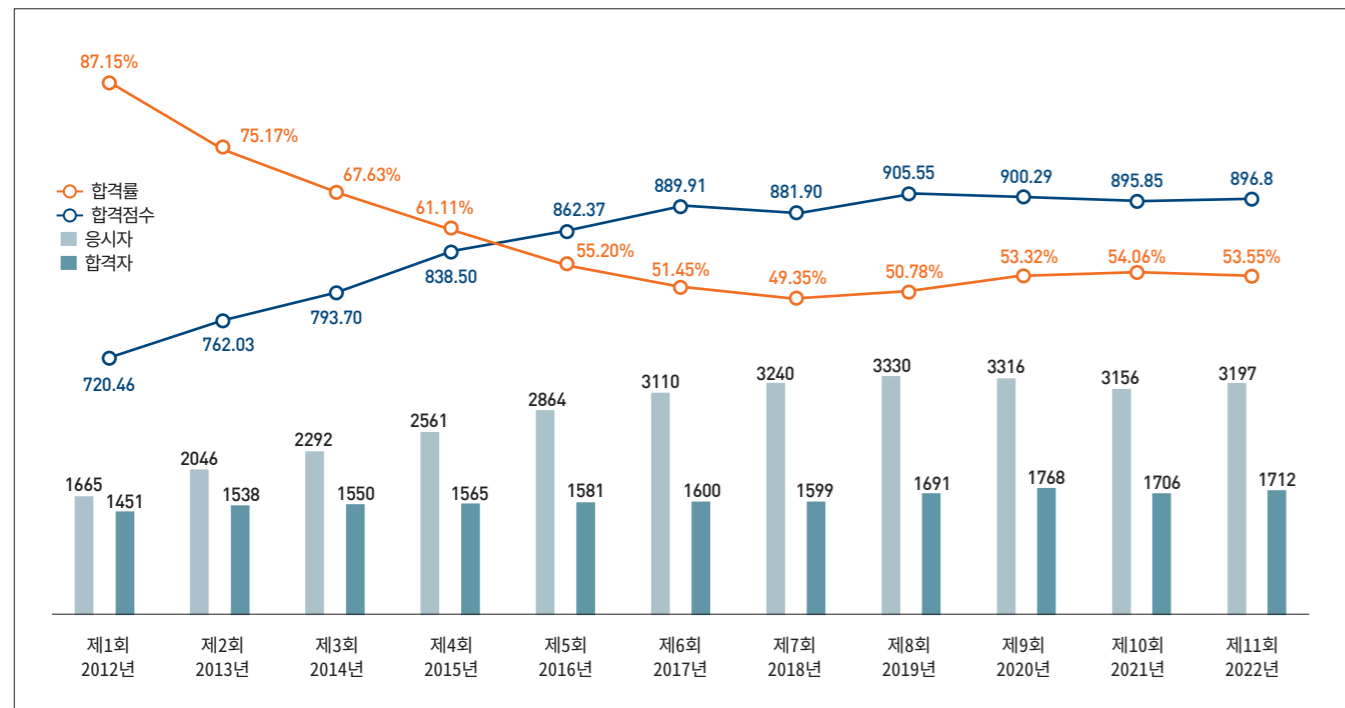
A. 2011~2020학년도 25개 로스쿨에서 유급된 인원은 평균 81.3명이다. 의대보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재학생 1만1,830명 중 22명(0.19%)만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에 비해, 법전원은 25개교 6,206명 중 자퇴 151명, 제적 7명, 기타 19명 등 177명(2.86%) 중도 탈락했다.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엄정한 평가를 받아 법전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Q.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사건 수입이 줄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A. 의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95% 합격한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보다 8,000~9,000명 정도 더 배출되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2016년~2020년 배출 의사 수는 1만5,545명이지만 같은 기간 배출 변호사 수는 8,239명으로 의사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변호사들이 자신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목적 아래 법전원 도입취지를 외면하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1년 국내 법률시장의 매출 규모는 3.1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해졌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90여 개 대학에 존재하던 법학과에서 연간 5,000명 이상의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변시 합격자 취업률도 매년 90%를 웃돌 정도다.

Q. 변협에서는 너무 많은 3만명시대 변호사가 오히려 질적 저하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비판합니다.

변호사시험 높아지는 합격선, 줄어든 합격률 (단위:명,점)



A. ‘너무 많다’는 주장은 철저히 변협의 입장이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2018년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를 보면 미국(40.85명), 영국(31.20명), 독일(19.65명), 한국(6.20명)이다.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변호사의 질이 저하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매년 3,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의 질은 어떻게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나.

Q. 일본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며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가 2.5배 가량 많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면.

A. 일본은 법조 유사지역의 인원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변호사 수로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소송 사건은 일본보다 1.9배 많으며, 고소와 고발 건수는 무려 39.7배에 달한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가장 시급하다.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법전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그러려면 최소 ‘응시자’ 대비 80% 이상 합격해야 한다.

Q.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승한다면 로스쿨을 둘러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수저, 귀족학교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 같은데.

A. 학비가 비싼 이유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활수급자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으로 1~3분위 학생은 100% 장학금을 주고,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

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생활비까지 지급하고 있다. 물론 고소득층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로스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Q. 올해 로스쿨에 저소득층은 16%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A. 학교에서는 개인정보인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함정이 있는데, 재산 환산 소득이라고 하여,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일정 비율을 연소득으로 환산한다.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연소득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8~10분위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서울의 주요 학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 양극화가 대학과 로스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한다. 로스쿨은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경제적, 신체적 등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선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입학했을 경우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Q. 최근에는 서울 주요대 로스쿨을 가기 위한 재수 삼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A. 로스쿨간 서열화가 불려온 부작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로스쿨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25개교가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초부터 각 학교별로 인적, 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한 ‘특성화 분야’를 정하여 전략적 특성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어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든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한 것인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기형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가야만 로펌, 검찰 등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경력자들이 로스쿨에 유입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적정수준 이상 합격률(응시자 대비 80%수준)이 보장되는 등 법전원 제도가 안착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점, 합격률이 50% 수준인 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 때문이다. 지금처럼 50%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옥상옥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법전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및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학업비 및 생활비 부담 없도록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시 기간 · 응시 횟수 제한하는 불합리한 시험,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이 유일해



김형래 변호사

현 변호사시험법에서는 군 복무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의 기회를 소진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명 '오탈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로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원히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1천 명을 넘어섰다. 5번의 시험을 치른 끝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형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축하한다. 제7회 시험 이후 5번 만의 합격이라 감회도 남다르겠다.

A. 학교 다녔던 기간보다 수험생활을 더 길게 했으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먼저 합격한 동기들은 이미 연차가 쌓인 터라,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전보다 잠은 잘 자고 있다(웃음).

Q. 탈락을 거듭할수록 초조함과 불안감이 커졌겠다. 수험 기간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A. 3번째 시험을 마친 직후 현역 입대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입대하였는데, 4월에 결과를 확인해보니 탈락이었다. 그때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Q. 그러면 네 번째 시험은 군대에서 준비한 건가?

A. 다행히 군사경찰대에 입대하여 수사 업무를 했고, 부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줬다. 3번째 시험 점수가 커트라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4번째 시험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8월에 전역해서 당장 몇 개월 후에 마지막 시험을 봐야 하니까 그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다.

Q.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했을 때의 기분은?

A. 이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올해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어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Q.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A.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선발 인원을 발표 당일에 정하는 시험이 어디에 있다. '올해는 몇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줄을 세워서 약 1,700명 안에 들면 자격이 있는 거고, 못 들면 자격이 없다고 치부해 버린다. 선발 과정도 대단히 기형적인데, 여기에 '5년 내', '5회 응시'라는 제한까지 붙였다. 어느 방향으로든 정리를 하는 게 맞다.

Q.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을 기각 결정했다. 합헌의 논거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A. 응시인원이 누적되어 합격률이 하락할까 봐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제한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본다.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응시인원은 누적되고 있으며, 합격률도 50%대로 떨어졌다. 자격시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Q. 로스쿨에 입학할 때에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나?

A. 내가 입학했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다. 합격률이 50% 내외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요즘엔 로스쿨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Q. 현행법에는 '5년 내 5회' 제한에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큰 자격시험도 응시 기회 제한 요건이 있나?

A. 엄격한 학력 제한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기타 자격시험에는 응시 기회 제한이 없다. 보건의료 계통에 전문 자격증 시험이 많은데, 이 시험들은 대부분 '평균 몇 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다. 응시 횟수나 응시 기간을 한정하지는 않는다.

유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만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유 없는 차별이며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Q. 다른 나라들도 응시 기간, 응시 횟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곳은 있지만, 응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 한 주에서 안 되면 다른 주에서 응시하면 되니, 실질적으로 응시 제한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시험으로는 경영대학원 입학시험(GMAT)이나 의대 입학시험(MCAT) 등이 있지만, 이 시험들의 경우 대학/대학원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으로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과는 아예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격시험'임에도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모두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Q.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던 지난 4월,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데.

A. 사법시험 유예 반대 집회, 변호사시험 합격률·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집회 등 재학 중에는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에 많이 참여하였다. 오탈자 관련 집회는 그동안 법실련(법조인문턱낮추기실천연대)에서 주로 진행했

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다.

Q. 합격자 발표 당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었다. 그 옆에서 집회를 하기에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A. 이전에도 법무부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였지만 언론사 기자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다른 집회와 비슷한 분량으로 기사가 나갔다.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더라(웃음). 당일 나를 포함하여 3명이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응원도 많이 받았다. 집회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은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에 기부금으로 드릴 예정이다.

Q. 앞으로도 계속 오탈제도의 폐지를 위해 힘을 실어줄 건가?

A. 좋아하는 만화에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라는 대사가 나온다.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험생활을 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오탈제도의 폐지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Q. 끝으로 어떤 모습의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A. 합격자 발표 날,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며 현수막을 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과천에 사시는 삼촌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셨는데, 내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불합격했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웃음). 현수막을 달면서 염원했던 나의 마음을 초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외의 사유도 많을 것 같은데.

A. 임신, 출산, 질병, 가난 등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수많은 사유들이 있다. 5년의 제한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출산의 경우에도 아이를 낳은 후 육아를 해야 하니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간과한다. 최소한 5년 제한만 없애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Q. '5년 내'라는 요건만 삭제된다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A. '5년 내', '5회 응시' 모두 개선하는 게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5년 제한'만 없애더라도 임신, 출산, 질병 등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미 응시 기회가 없어진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몇 번의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제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너무 낮으니까 '5년 내' 요건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특성화 교육이 살아나거나,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5년 내' 요건의 삭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도일 것이다.

Q.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같은 다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2022년 8월 26일(금) ~ 27일(토)
11:00~18:00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공동입학설명회에는 수험생, 학부모 및 법조인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p>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선발</p> <p><특별전형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교 입학자의 7% 이상 선발 <p><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재 법전원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5~15%) 	<p>높은 장학금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 장학금 지급 · 전체 재학생의 51.25% 장학금 수혜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 소득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100%~10%의 장학금 지급 	<p>최상의 교육과정·편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과 실무를 융합시킨 종합적인 교육 커리큘럼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강의실, 모의법정, 전용도서관, 전용열람실, 기숙사, 휴식공간 등 교육/편의시설 마련
---------------------------------------------------------------------------------------------------------------------------------------------------------------------------------------------------------------------------------------------------	-----------------------------------------------------------------------------------------------------------------------------------------------------------------------------------------------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참여교
·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프로그램
· 학교별 상담부스 운영, 1:1 개별상담 등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사항 안내

참여안내
· 무료 입장
· 안내데스크에서 책자 및 기념품 수령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 참고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 동문에서 30m 거리에 위치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후 2번 출구(도보 15분)

<버스 이용시>
4211 한양대동문앞 하차
121, 302, 2012, 2014, 2016, 2222 한양대정문앞 하차
※ 차량 이용시 교내 주차장에서 주차권 발급 후 입차(무료)
※ 행사장 주변이 혼잡하오니 기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튼튼한 법적 기본기 갖추고,
전문가·동료로서
믿을 수 있는 인재 찾아

법무법인[유] 지평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학년 동계, 2학년 하계 채용연계형 인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을 맞아 각 로펌별로 하계 인턴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평의 채용 담당 변호사인 장품 변호사(42·사법연수원 39기)를 만나 지평만의 선발에서 채용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Q. 하계/동계 인턴 과정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평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동계 인턴을,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용과 관련된 인턴은 2학년 하계 인턴이며, 1, 2차에 걸쳐서 각 8명 업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추어 지원 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받아서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한 차수당 30명 전후로 선발합니다. 인턴 기간의 과제 등을 평가하고 여러 차례 면담 시간을 가진 뒤 최종 면접을 거쳐 매년 15~20명 규모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로펌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 채용 규모가 많지 않은 편인데, 이는 이턴 인원을 염두에 두고 대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선발한다는 채용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Q. 인턴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의 경우 스펙나열형보다는 자기고백형 혹은 스토리텔링형을 선호합니다. 스펙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 속에서 포인트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맥락 없이 스펙만 쓸 때에는 매력적

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이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을 겸허하고 담백하게 드러낼 때 자기소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바쁜 학교 생활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특별히 쓸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쓸 말을 줄이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은 아마도 경험을 스펙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 못해 영화 한 편을 봐도 예비 변호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변잡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아니겠지만,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예비 변호사로서 깊이 고민한 과정을 잘 드러낸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구슬처럼 꿰어질 수 있습니다.

Q. 지평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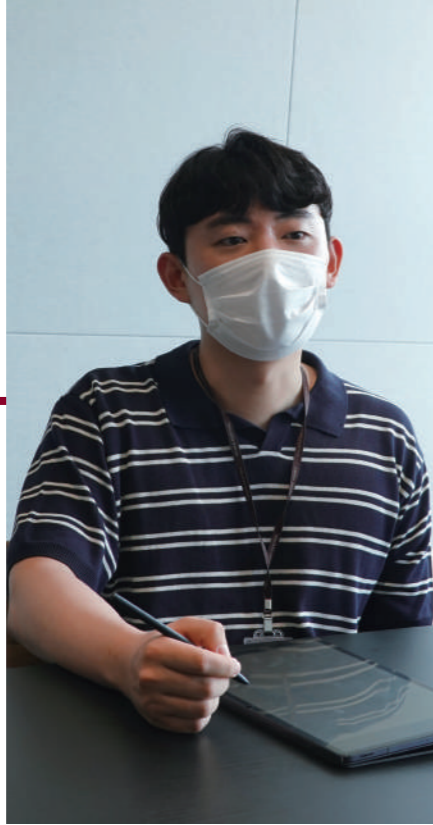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동업자로서 좋은 일과 굵은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



인터뷰어. 이지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인터뷰이. 장품
법무법인[유] 지평



졌습니다. 단순히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넘어, 좋은 동료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인턴 과정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턴 과정은 크게 과제평가와 면담으로 구별됩니다. 과제평가는 다시 소송서면 작성, 자문의견서 작성, 리서치 업무로 나뉘어지며, 로펌에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과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웠던 기본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고, 주로 민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면담 시간에는 학생들이 로펌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HR 담당 변호사 및 신입 변호사 분들과의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하여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어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Q. 인턴 과정에서의 과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이나 의견서마다 평가포인트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쟁점을 정확하게 발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고, 이슈에 관하여 풍부한 논리, 근거, 판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걸 다큐먼트의 특징은 단순

히 글만 잘 쓰거나, 자료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료와 논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어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서면은 재판부를, 의견서는 고객을 독자로서 하여 쓰는 글인 만큼, 각 상황에 맞는 법문서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글에서 느껴지는 꼼꼼함과 치밀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로펌 변호사의 자문 업무는 딱맞는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사건은 말씀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문 업무는 고객이 못찾은 걸 찾는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판례, 법리,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는 과정으로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발굴해내는 작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에 대한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태에서 법리, 관련 업계의 상황, 규제당국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채용 전 최종 면접에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종 면접의 경우에는 실제 신입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내부 그룹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최종 면접자가 노동업무에 잘 맞을지, 자본시장 업무에 잘 맞을지, 소송과 자문 중 어떤 업무에 더 잘 맞을지 등 업무에 특화된 능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 입사 이후 팀배정 및 전문 커리어 개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신입 변호사에 따라 입사 이전부터 스스로 분명하게 원하는 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채로 입사하거나 본인이 어떤 업무에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하여 회사에서 팀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음에 정해진 팀이 바뀌기도 합니다.

- 매년 하계 인턴 5~60명 선발 후 최종 15~20명 채용
- 법적 기본기가 튼튼하고, 동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채용하고 싶어
- 1년차 연봉 세전 1억 4천만 원... 안식휴가 및 유학 기회 제공

Q. 지평만의 특별한 정책 혹은 문화가 있습니까?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수를 선발해서 소수를 남기기보다, 한 번 뽑으면 끝까지 같이 가고자 하며, 또한 후배 변호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한 명의 변호사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내보니, 저년차의 이직이 활발한 시장의 상황과는 달리 지평의 저년차 변호사의 이직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낮은 것도 지평의 채용기준 및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Q. 신입 변호사의 급여 및 복지 제도가 궁금합니다.

신입 변호사 기준으로 대략 세전 1억 4천만 원에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식대, 교육비, 도서비, 체력 단련비, 택시비 등을 지원하며 연휴가는 1년차 때 15일, 2년차부터는 18일에서 하루씩 추가됩니다. 휴가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이고, 4년차 때부터 안식휴가라고 해서 2주 동안 유급 휴가가 제공되며, 7년차 때 이용할 수 있는 유학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내연수도 가능하고,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파트너 변호사 심사 연차, 여성변호사의 수, 워라밸 등이 궁금합니다.

주로 7년차에 유학을 다녀와서 9년차가 되면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은 젊은 로펌이어서 흔히 말하는 인사적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변호사의 비율은 파트너가 아닌 예비구성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4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펌의 경우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워라밸을 논하기는 어렵고 권장근무시간은 존재합니다. 다른 로펌보다 특별히 워라밸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삶이 붕괴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으므로 그런 관점에서 밸런스는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이 지나치게 한 후배에게 몰리지 않도록 균등배당하고자 노력하며, 과배당, 오배당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에 대한 욕구가 달라서 단기간 내에 빨리 전문성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개인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업자로서의 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 등 공통분모가 튼튼하게 잡혀있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평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픈 한 마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단 지평뿐만이 아니라 필드에 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면서, 제가 학생인 시절에 들었다면 좋았을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부에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와 법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공부는 나중에 실무에서 다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가 결국에는 쌓여서 언젠가 써먹게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지금의 시간이 매우 가치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앞으로 살면서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주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실무를 하면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오히려 공부가 간절해집니다. 학생일 때 잘 모르면 시험에서 틀리면 그만이지만, 실무에서 틀리면 고객과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기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파리로

2014년 10월, 나는 파리로 향했다. 도시 북쪽, 공항의 낮은 느낌이 여전히 생생하다.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은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파리17구의 한 주택가 2층이었다. 크루아상이 가장 맛있다는 빵집이 길 건너에, 녹색의 아름다운 꽃집이 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 년 정도 유학준비를 하면서도 어학공부에는 큰 비중을 두진 않았다. 현지에서 언어를 배워볼 계획이었기에, 정착하면서 은행, 우체국, 학교에서는 제법 교양이 있는 관광객 대우를 받았다. 그래도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간 덕에 행정청들에서는 많은 편의를 봐 주었다. 부족한 어학은 집 근처 사립어학원에서 2년 동안 아침마다 수업을 들으며 보충해갔다.



집 근처 꽃집

파리 13대학교로

파리13대학교는 집에서 30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파리'13대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파리 시내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했는데, 학교 안에는 드넓은 목초지가 있어서 양들이 우아하게 풀을 뜯었고, 주변에는 수십 년 전 프랑스에 정착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2세대들이 세력을 자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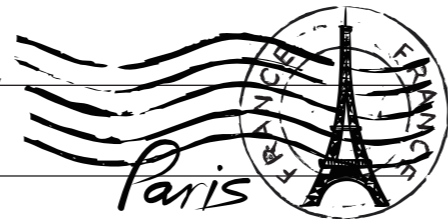
쉬는 시간마다 목초지의 양들을 보며 쉽사리 늘지 않는 어학과 어쩌면 프랑스 민법 개정이 급격히 진행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잊곤 했다. 당연하게도 학교 식당에서는 주기적으로 양고기 요리가 등장했는데, 목초지의 양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했



황재훈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양산시 분사무소장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겸직교수
프랑스 파리13대학교 民法 법학박사

나의 파리, 프랑스어 초보의 박사학위 도전기



었다. 학교에서는 종종 원어민들의 아랍어를 들을 수 있었고, 취미삼아 듣기 시작한 학교어학센터의 아랍어 수업도 2년간 꾸준히 들으면서, 다양한 문화와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계약법의 등장

2016년도에는 큰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민법전이 2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였는데, 그 유명한 <프랑스 채권법개정>이다. 국내의 프랑스법 학자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일이었지만, 먼 타국에서 곤궁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유학생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작이었다. 게다가 추가적인 보완입법까지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나는 그간 다듬어온 논문의 목차를 떠나 논문주제에 대해서도 24시간 내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프랑스 채권법개정을 핑계로 '계약의 해제'를 박사논문의 주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수많은 박사논문과 개정채권법 교과서를 정독하기 시작했다. 이제 글을 좀 써보려고 했더니 곧이어 일본에서도 민법개정이 진행되었고, 2018년도에는 프랑스 채권법개정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법률도 통과되었다.

계약의 해제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였다. 계약을 인간의 삶이라 본다면, 계약의 해제는 인간의 죽음에 해당했다.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삶을 알아야 하듯이, 계약의 해제를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엇

인지 탐구해야만 했다.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 앞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어로 돌아가 고향에서의 변호사개업을 구상했다. 어느 가을 날, 나는 정말로 귀국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지도교수와의 마지막 미팅도 준비했다.

지도교수와의 작별인사는 팜테옹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에서 잡혀 있었다. 나는 그간의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그간 복잡했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다. 이것이 바로 자유일까? 마치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난 계약자처럼 내 마음도 인생도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그때서야 나는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다름이 아니라 '자유'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음! 그리고, 그 '자유'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사학위 수여

2019. 3. 25.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심사가 있었다. 심사위원 이름을 잘못 적은 논문 표지를 고치느라 주말 내내 문 닫은 인쇄소를 두드리고 다녔기에, 월요일 아침이었던 사실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의상준비를 하느라 15분 정도 늦게 오고 있었다. 강의실 창밖으로 심사위원들이 빨간 옷을 휘날리며 걸어왔고, 어느덧 내 눈앞에 섰다. 100번은 죽히 읽고 외웠을 발표문을 결국은 읽어 내려갔다. 웃어야 할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이 사뭇 더 진지해져서 심적 압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심사위원 중 두 분께서는 프랑스군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을 상대하듯 나의 주장과 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다. 2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우군이라고 믿었던 지도교수는 스위스 마냥 중립을 선언하고 앉아 있었다.

유학생활을 마치며

돌아보면 학부 전공(수학,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무관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했다는 사실은 무모했다.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이 없었다면 나의 유학생활이 졸업이라는 결실은 맺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제 와서 남은 것은 두꺼운 서류들이 아니고, 추억과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가끔은 유학시절 만난 친구들과 서울의 프랑스 식당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귀국 후에는 학술논문을 집필하기도 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며 각종 시민단체 활동을 참여해 왔다. 올 가을에는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는 '에너지법 개론'이 세 번째 해를 맞이한다. 또 이번 여름부터는 고향인 경남 양산에서 분사무소 소장으로서 업무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2019. 6.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위치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방문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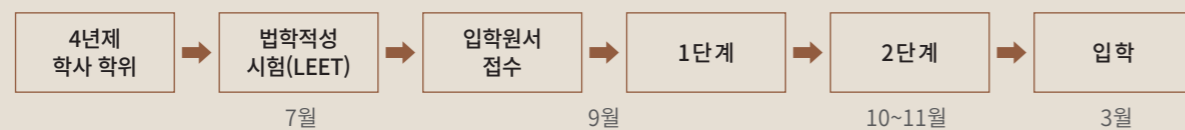
박사학위 심사를 마친 후 심사위원들과 함께한 기념촬영. 왼쪽부터 마리-크리스틴 오토랑 교수, 샤를-에두아르 뷔세 교수, 필자, 무스타파 메키 교수, 필립 뒤피소 교수, 필립 쇼비르, 안느 에티에네 드 생트 마리 교수

법조인 양성 제도가 소수 엘리트만을 선발하던 사법시험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로스쿨의 입학 과정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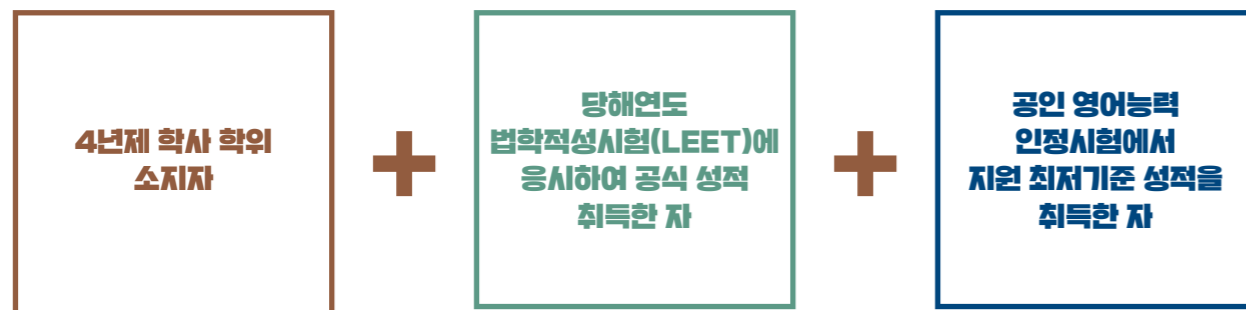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로스쿨 입학 방법 총정리



《로스쿨 입학전형(입학 과정)》



지원 자격(공통사항)



Q.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나요?

A.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학점은행제도, 독학사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입학전형 유형

입학전형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지며, 원서 접수 시에 구분하여 접수해야 한다. 입학정원은 로스쿨마다 상이하나,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각 교 '입학자의 7% 이상'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전형	•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
특별전형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 등 (경제적 배려대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Q. 로스쿨 입학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쿼터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비법학사 쿼터, 타 대학 졸업자 쿼터,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가 있습니다.

비법학사 쿼터	법학사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입학자의 1/3 이상 선발
타 대학 졸업자 쿼터	해당 로스쿨 대학 졸업자 이외의 타 대학 학부 졸업자를 1/3 이상 선발
지역균형인재 선발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입학자의 15% 선발(강원 10%, 제주 5%)

단계별 입학전형

지원자는 25개 로스쿨 중에서 2개의 로스쿨(가군 1개, 나군 1개)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군 내에 2개의 로스쿨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모든 로스쿨은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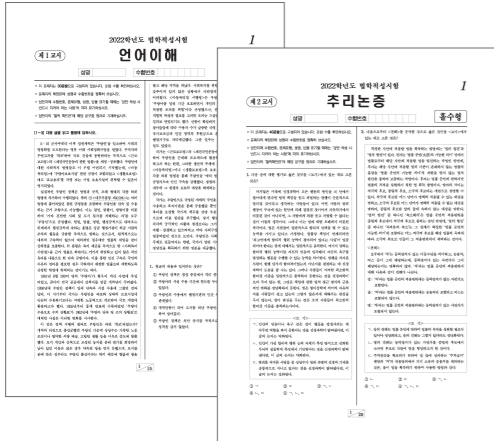
(예시) A 로스쿨 입학전형

- 모집 인원: 120명 (가군: 70명, 나군: 50명)
- 전형 방법 및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적성시험 성적: 35점 • 학부 성적: 25점 • 어학 성적: P/F • 자기소개서: 20점 [합계: 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80점 • 논술 성적: 10점 ('가'군만) • 면접 성적: 가군 10점, 나군 20점 [합계: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순위로 선발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과 전형요소별 배점, 반영비율이 상이함.

법학적성시험 성적, 대학 성적,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 자기소개서 (로스쿨마다 반영비율 상이)



①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법학적성시험이란?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 매년 7월 중순 시행(년 1회)
- 총 3개 영역이며, 언어이해/추리논증의 경우 오지선다형, 논술은 서답형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30문항	40문항	2문항

② 대학 성적

- 각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성적 산출 공식을 바탕으로 학부 과정 전 학년의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를 산출한다. 백분위 점수가 없는 경우 각 교에서 제공하는 평점평균의 실점환산 기준표에 따른다.

③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

- 로스쿨 원서 접수 시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는 필수 요소로 활용된다. 다만, 점수를 환산하여 단계별 전형에 합산하거나 P/F로 평가되는 등 로스쿨마다 활용 방법이 다르다.

TOEIC	TOEFL	TEPS	IELTS
-------	-------	------	-------

- 로스쿨마다 반영되는 시험과 반영 방법도 상이하다.

④ 자기소개서

- 로스쿨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상이하나 주로 기본 사항과 경력 사항, 개인 소개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등
 *경력 사항: 사회경력, 자격증, 어학시험 점수,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
 *개인 소개: 지원 동기, 입학 이후 학업 사항, 법조인으로서의 향후 진로 또는 활동 계획 등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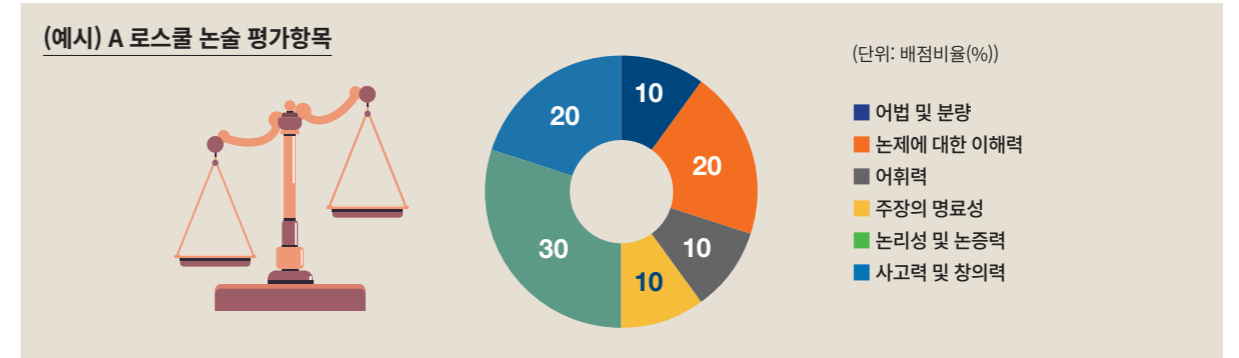
Q. 학벌이 좋고, 인맥이 있어야 입학에 유리하지 않나요?

A. 지원자의 모든 제출 서류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는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부모·친인척의 실명, 직장명(직위, 직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조치됩니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므로, 인맥과 학벌 등 지원자의 외적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1단계 성적, 법학적성시험 논술 성적, 면접 성적

① 법학적성시험 논술 성적

- 논술 성적 반영 여부는 로스쿨마다 상이하다.
- 반영하는 경우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의 논술 영역 답안을 평가하는데, 각 교의 채점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면접 성적

- 지원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고력의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면접 문제를 제시하고 지원자의 구술 답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로스쿨마다 면접 질문과 평가 기준이 상이하다.

(예시) A 로스쿨 면접 질문

- 지성면접**
 Q.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해 3개 이상의 근거를 대고, 각각의 근거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A.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증진시키는가?
 B. 규칙의 증가는 자유를 신장시키는가?
- 인성면접**
 Q. 어떤 법조인이 좋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는가?
 Q. 자신이 다른 경쟁자보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고 보는가?

여기서 잠깐!

Q. 면접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A. 면접을 진행할 때에도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가 삭제되며 가(假)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면접위원을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게 하는 나만의 건강관리법



박상운 변호사·약사

(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전)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현)국회의원 권은희 의원실 보좌관

‘캠퍼스의 로망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로스쿨을 갔을 때가 기억난다.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느꼈던 기분은 무언가를 이루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처음 1학기는 캠퍼스 생활을 즐기곤 했다.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있기보다는 엉덩이를 가볍게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그 결과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정신이 번쩍들어 그때부터 하루종일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를 꼭 숙이고 수험생활을 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체력은 저하되고, 눈이 아프고, 머리도 멍한 상태를 수시로 겪었다. 오랜기간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저하되며 수시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

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항상 부족한 로스쿨생에게는 헬스장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치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기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영양제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1.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여 구입 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흔히 마트나 온라인 판매점에서 접하기 쉬운 것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함유된 원료명만 기재돼 있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어떠한 성분 및 함유량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반의약품은 질병의 예방과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대하여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일반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하여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자신의 체질·기호에 따라 적절히 구비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타민 A와 D성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섭취하면 좋다.

비타민 C가 항산화제 역할, 인체 면역력 향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비타민 B 역시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여 흔히들 섭취하는 영양제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타민 A(레티놀)의 섭취를 간과하기 쉬운데, 비타민 A는 눈의 신진대사의 다양한 부분에 관여하는 필수 성분으로 장시간 책을 볼 수 밖에 없는 수험생에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막고 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또한, 콜라겐의 합성 촉진과 분해, 억제 기능

을 통해 피부, 점막의 보호에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필수 비타민이고 햇빛을 통하여 체내에서 자연스레 생성되지만 수험생은 햇빛을 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밀도의 감소를 초래하여 뼈가 약해지기 쉬우며, 특히 수험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비타민제를 먹는 것도 좋지만, 비타민 A, C, D를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영양제 뿐만 아니라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 등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꾸준히 생활하는 것이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로스쿨 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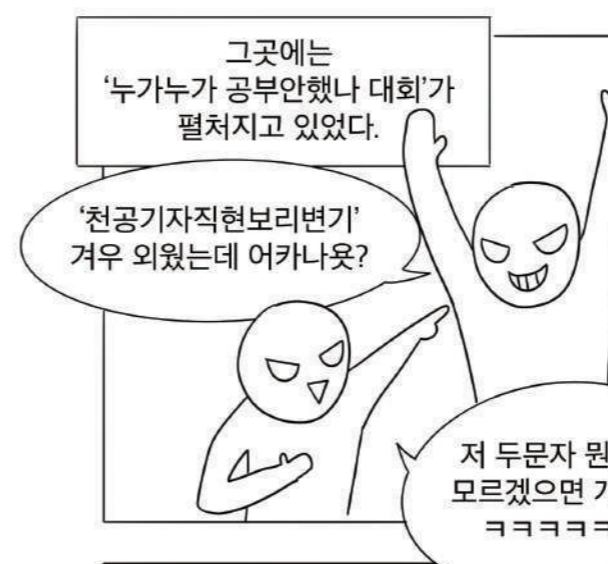
3. 수면 및 식습관, 운동, 보조영양제 등 삼박자를 갖추면 더욱 좋다.

흔히 수험생활은 머리보다는 끈기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말 그대로 100m 단거리 시합이 아니라 42km 마라톤, 아니 3년간의 긴 레이스를 누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은 체력과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냐의 싸움이다. 누구든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험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침을 거르지 않고 항상 챙겨먹기 위해 노력했다. 대개 밤보다는 아침에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수험생활을 하였다. 아침식사를 하는 습관과 야식을 먹지 않는 습관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아침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가지 않은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시리얼류를 주로 챙겨먹었고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아침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챙겨먹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늦어도 12시 이전에 수면에 들어야 한다. 저녁 5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고, 낮잠은 30분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가벼운 조깅을 꾸준히 하는 게 좋지만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점심 먹은 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걷는 것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특히 음주는 그날 뿐만 아니라 다음 날 공부하는 패턴을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셔야 할 일이 아니라면 3년간 절제하는 것이 체력에 도움이 된다.

영양제는 비타민 A, C, D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좋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담당하고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몸의 각종 호르몬을 분해하고 대사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해독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몸 안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어 집중력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3년의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면 평소 공부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6개월이 긴 수험생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의 달콤한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밤을 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체력이 부족하여 힘들어 한 원우들을 많이 보았다. 필자가 로스쿨에 다닐 당시에는 법대출신의 학생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비법대출신들이 많아 입학부터 법에 대해 생소한 원우들이 많을 것이다. 법에 대한 개념, 즉 리절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는 법 공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성숙기를 거쳐 평균적으로 2학년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학년 이후부터 더 열심히 법과 씨름해야 할 체력을 길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영양제 뿐만 아니라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 등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 꾸준히 생활하는 것이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로스쿨 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독/동

법대가리: 로스쿨 12기로 인스타그램(@law_head_)에서 '로스쿨 생활툰'과 '리트 도전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마이크 브라운,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2006년 8월 24일, 과학계의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국제천문학회가 태양계 행성에서 명왕성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발견된 지 76년 만에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게 되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신의 연구 성과가 나비효과처럼 명왕성 퇴출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 과학자에게는 ‘명왕성 킬러’라는 거창한 칭호가 붙었다. 물론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말이다. 그는 명왕성을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항의 전화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직접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자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 명왕성 킬러 마이크 브라운의 태양계 초유의 행성 퇴출기」라는 책을 내놓게 된다.

저자는 태양계 행성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행성(行星, planet)은 밤하늘의 고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수많은 별(항성, star)과는 달리, 매일 위치가 변하는 움직이는 천체다. 고대부터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행성으로 알려졌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후 지구도 태양을 도는 행성으로 분류되었다. 그 후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1781년 7번째 행성인 천왕성, 1846년 8번째 행성인 해왕성이 각각 발견되고,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행성보다 더 작은 천체인 수많은 소행성(asteroid)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1930년에는 미국의 클라이트 톰보가 명왕성을 발견하고 이는 9번째 행성으로 간주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해왕성보다 먼 궤도에서도 소행성이 연달아 발견되어 천문학계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로 떠오른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크 브라운도 이곳을 주목하였다. 1997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조교수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혹시 해왕성보다 먼 궤도에 새로운 행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관측을 시작했다.

그는 2002년 ‘콰오아’(지름 1,110km)를 시작으로 ‘세드나’(995km), ‘오르쿠스’(910km), ‘하우메아’(1,560km)를 연달아 발견하지만, 이들은 크기가 명왕성(당시 알려진 지름 약 2,300km)보다 작고 가장 큰 소행성 세레스(939km)와 비슷한 정도여서 새로운 행성이라 불리기에 적합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5년 1월 5일, 드디어 명왕성보다 더 크게 보이는 천체 ‘에리스’(2,326km)를 발견하고 만다.

에리스는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언뜻 생각하면 행성인 명왕성보다 약간이나마 크니까 에리스 역시 행성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런데 에리스의 발견은, 그간 미심쩍어했지만 대놓고 거론하기 어려웠던 “명왕성은 과연 행성일까?”라는 질문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말았다. 명왕성은 다음으로 작은 행성인 수성(4,879km)보다 지름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태양계에는 심지어 달(3,470km), 가니메테(5,268km) 등 명왕성보다 큰 위성도 7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 천문학의 역사에서 명왕성의 운명과 딱 들어맞는 사례가 존재했다. 천왕성까지 7개의 행성이 알려졌던 19세기 초, 화성과 목성 사이의 작은 천체 4개(세레스, 팔라스, 주노, 베스타)가 연달아 발견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이 4개 천체 모두 ‘행성’으로 간주 되었지만, 약 40년이 지난 후 비슷한 위치에서 수많은 작은 천체가 연거푸 발견되면서 이들도 행성의 지위를 잃고 다른 작은 천체들과 함께 소행성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해왕성보다 먼 궤도에서는 처음에는 명왕성 하나만 알려졌지만 1990년대부터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마이크 브라운에 의해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 에리스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그럼 과연 명왕성과 에리스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행성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천문학의 발달로 태양계에는 지름이 수 m 정도 되는 작은 암석부터 10만 km가 넘는 목성까지 다양한 크기의 천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행성과 행성이 아닌 태양계 작은 천체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 이 모두를 행성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으니 말이다.

우선 <천체가 구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질량과 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정의가 제안된다. 다시 말해 행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덩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건을 반영할 경우 지름이 약 1천 km 정도 되는 천체들은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소행성 중 가장 큰 세레스,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1,212km), 그리고 새로 발견된 에리스까지, 기존 9개였던 행성이 순식간에 3개가 늘어난다. 게다가 해왕성 바깥에는 마이크 브라운이 발견한 유사한 크기의 천체만 해도 하우메나, 콰오아, 세드나 등 여러 개가 있으니, 당장은 12개이지만 향후 관측 기술이 더 발달하면 200개 이상으로 행성이 남발될 것이 유력했다.

그러자 여기에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제안되었다. 지구가 달을 위성으로 거느리고 지구의 궤도에 행성급의 또 다른 천체가 없는 것처럼, 행성은 해당 궤도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소행성대에 위치한 세레스는 물론이고, 해왕성 바깥의 명왕성과 에리스 모두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여러 존재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성은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8개로 축소된다.

명왕성을 행성으로 유지하려면 태양계의 행성을 12개(+α)로 늘려야 하고, 아니면 명왕성을 제외하고 행성을 8개로 줄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왕성이 행성임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간 가장 큰 소행성으로 알려진 세레스와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서로 다르다는 과학적인 정의가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행성 VS 행성 아님의 기준을 어디서 세울 것인지의 결정만 남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의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아주 큰 결정이기에 저자 마이크 브라운도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2006년 8월 에리스가 발견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국제천문 학회는 '지배력' 조건을 행성의 정의에 포함시키면서 명왕성을 행성 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왜행성」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었으니, 이는 '구형' 조건을 만족하되 '지배력'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천체 를 칭한다. 여기에는 명왕성과 함께 에리스, 세레스가 포함되었고, 2 년 후 역시 마이크 브라운이 발견한 천체 하우메아, 마케마케가 추가 되었다.

결국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의 연구는 오히려 애 꽃은(?)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되는 엉뚱한 결과를 맞아야 한다. 만 약 명왕성이 행성으로 유지되었다면 에리스도 새로운 행성으로 인 정되었을 것이고, 그는 허셜, 갈레, 톰보와 함께 역사상 몇 안 되는 '행성 발견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에

리스가 행성이 아니게 되는 명왕성의 행성 제외에 찬성하였으니, 그 자신도 과학적으로 행성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명왕성과 에 리스는 행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본인의 영예보다 과학적 엄밀함을 더 중요 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독자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저자의 의견에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그는 '열 번째 행성'의 발견자는 되지 못했지만, 해왕성 너머 먼 영역에 있던 여러 큰 천체를 발견하여 인류의 태양계 에 대한 인식을 넓혀준 업적을 세웠다. 특 히 그의 발견이 왜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 를 탄생시켰고, 왜행성 5개 중 기존에 알려 진 명왕성, 세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는 모두 그가 찾 은 것이다. 현재도 그는 해왕성 밖의 새로운 행성인 '제9행성'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예측 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발견으로 세상을 놀 라게 할지 기대가 된다.



송현량 주무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2008)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 근무 (2013~2020)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근무 (2020~현재)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라이언 고슬링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설령 영화를 즐겨보지 않더라도 영화 감상은 일반적으로 휴식에 가깝지 노동은 아니다(영화 감상이 직업이 된다면 노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영화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나는 현재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꽤 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에 영화를 좋아해서 그저 열심히 봤을 뿐인데 그 취미가 확장되면서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된 것이다.

한 때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을 겪던 시기가 있었다. 원래도 영화를 좋아했지만 당시에는 영화를 더 자주, 더 많이, 시간이 되는대로 계속 보았다. 그러다보니 한 달에 본 영화가 20편을 훌쩍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영화가 주된 업이 아닌 이상에야 일과 병행하면서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그렇게 홀린 듯이 영화를 많이 보게된 이유는, 영화 <라라랜드>로 처음 봤던 배우 라이언 고슬링을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다시 만나 소위 ‘필’이 꽃혀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왜인지 알 수 없으나 <블레이드 러너 2049>의 라이언 고슬링을 보고 그 배우가 <라라랜드>의 그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라라랜드>에서는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갑자기 확 관심이 생기면서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는 영화는 죄다 찾아봤다.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작품이 아니라면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한 영화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거의 다 봤다는 자부심마저 있을 정도다. 영화를 살펴보면, 그가 법 조인(검사)으로 나와 놓칠 것 같은 범인을 잡거나, 선거전략가로서 통쾌한 한 방을 날리거나, 돈 많고 잘생긴 세상 부러운 한량이거나, 변하는 사랑을 지켜만 봐야하는 현실 남편이거나, 영원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비현실같은 남편 등 그는 오만가지 역할을 멋있게 보여 주었다. 매너리즘에 허덕이면서 라이언 고슬링에 빠져있던 나는 신기하게도 그가 출연한 다양한 영화를 보면서 매너리즘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시간이 흐를만큼 흘러 매너리즘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영화를 보며 가능성은 제로(0)에 수렴하지만 ‘만약 라이언 고슬링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나도 할 수 있는데(하고 싶은데)’라는 헛된 망상을 꾸면서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다시 집중하게 된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법조인이 되기 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도 영화의 도움을 받았다. 시험에 다 떨어지고 그 당시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겪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영화를 보는 것 밖에 없었다. 다른 방향을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공부에 파묻히기에도 너무 지쳐서 책을 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멍때리며 영화를 보는게 다였다. 그때 나에게 빛이 되었던 배우는 오다기리 죠였다. <매종 드 히미코>에서 처음 보았던 오다기리 죠가 너무 인상깊어 그가 나오는 영화를 거의 찾아 보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불합격의 상처가 아물만큼 적당한 시간이 흘러 주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다시 책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일을 계속 겪을텐데 또 어떤 배우와 어떤 영화로 그 시간을 견디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걸음 나가게 될지 알 수 없다. 단순한 취미였던 영화가 이제는 생각을 쓰고 말하고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나에게 영화는 힐링과 환기를 넘어 인간관계를 소통하는 한 방법이 된 것이다.



고봉주 변호사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저자, <더뮤지컬> 칼럼 연재 중, EBS 라디오 <도전기의 오천만의 변호인>의 ‘씨네 리뷰’ 출연 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61차 총회 개최



5월 20일(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컨퍼런스홀에서 법전원협의회 제61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제61차 총회는 한기정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였으며, 업무사항 보고, 심의·의결, 주요 현안사항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전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5월 27일(금)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전원 지역인재 선발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가 개최하였으며, 국가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 장석천 회장의 인사말과 법전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의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교수(전남대)는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입법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송양호 교수(전북대), 손태우 교수(부산대), 양선숙 원장(경북대), 육소영 원장(충남대), 이동현 원장(영남대), 이상경 원장(서울시립대)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원장 취임



김중보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부-법전원 입학전형 간담회 개최

5월 12일(목)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부-법전원 입학전형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3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였으며, 법전원 교무부원장 등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법전원 입학 시 다양한 사회경력자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2년도 제1차(6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문항 최종 검토회의 진행



5월 10일(화)부터 약 한 달간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문항 최종 검토회의가 진행되었다. 최종 검토회의는 사전에 출제된 모의시험 문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총 34명의 교수진이 참여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교수진은 문항의 오류 방지 및 질 제고를 위해 출제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6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57차 이사회 개최

6월 24일(금)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기정 이사장의 주재로 제57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제57차 이사회에서는 법학적성시험 추진사항,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추진사항 등의 업무사항이 공유되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법전원 제3주기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와 법전원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제5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 대회 주제: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정책 중에서 아래 주제 및 자유주제 선택

- 1) 남북교류관련 법제 제안
- 2) 통일 이후 남북통합 법제 제안
- 3)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제 제안
- 4) 북한인권관련 법제 제안
- 5) 기타 통일법 관련 자유 주제

• 접수 마감: 2022.7.31.(일)

• 응모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개인 또는 2인 1팀)

• 응모 방법: A4 용지 10매 이내의 연구제안서 작성 후 제출

• 시상 내역: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150만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회장상(70만원)

• 문의: 재단법인 동천(02-3404-7398, yekim@bkl.co.kr)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논문 공모



• 논문 주제: 법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주제에 한정하지 않음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지닌 논문

• 응모 자격: 2022년도 2월과 8월에 최종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동일대학 內 3명 이내 제한)

• 접수 마감: 2022.08.30.(화)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www.yuminlaw.or.kr - 알림마당 - 사업시행알림 - 게시판

• 시상 내역: 최우수 논문(3,000만원, 단행본 출간 지원), 우수 논문(500만원, 단행본 출간 지원)

• 문의: 홍진기법률연구재단(02-747-8112)

2023년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일정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 원서접수: 2023.06.26.(월) ~ 06.30.(금)
- 시험시행: 2023.08.05.(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 원서접수: 2022.10.19.(수) ~ 10.25.(화)
- 시험시행: 2023.01.10.(화) ~ 01.14.(토) ※ 01.12(목) 휴식일

QUIZ

1 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 ②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이 없으면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대학 교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아래 두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 ④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한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⑤ 노동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연혁적·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2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나.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丙을 상대로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다.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는 구할 수 있으나 Y 건물로부터의 철거는 구할 수 없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다
- ⑤ 가, 나, 다

3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중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면서 주변 테이블 여성 손님들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마침 건너편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다가서서 집어 들려고 지갑에 손을 댈 때, 이를 발견한 식당주인 A가 '직전에 왔던 손님이 잃어버린 것'이라 하며 집어 들지 못하게 하자, 甲은 A를 세게 밀친 후 지갑을 낚고 식당 밖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甲이 사용했던 물컵에서 지문 3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후 그 물컵을 수사기관에 가져갔다.

- ① 甲이 지갑을 가져가려 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절도의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행위로부터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甲의 위 폭행행위로 A가 넘어져 폭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과 무관하게 준강도되는 미수에 그친다.
- ④ P가 채취한 지문은 미리 압수한 대상으로부터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⑤ 만일 甲이 핸드폰 촬영도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